

학교문법에 나타난 相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연구

박 덕 유*

目 次

1. 서론	3. 상의 본질적 의미에 따른 해결방안
2. 학교문법의 상과 그 문제점	3.1. 狀態性과 動態性
2.1. 相의 개념과 용어 문제	3.2. 完結性과 非完結性
2.2. 상을 완료상과 진행상으로	3.3. 瞬間性과 持續性
제한 시킨 점	4. 결론
2.3. 時制와 相의 구별	

1. 서론

본 논문은 학교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相(aspect)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써 국어 相의 교육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문법적 범주요, 다른 하나는 문법화되지 않은 범주다. 전자는 文法相으로 完了相과 未完了相의 대립으로 표현되며, 후자는 語彙相으로 동사의 어휘적 의미와 그 동사가 처하는 문맥이나 담화상황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대체로 많은 학자들이 문법화되지 않은 어휘상을 등한시하고 있다.¹⁾

* 인하대

1) 슬라브 학자들을 중심으로 일부 언어학자들은 상을 'aktionsart'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Maslev(1962), Forsyth(1970), Comrie(1976)는 상(aspect)과 동작류(aktionsart)를 구별하여 aspect는 동사의 문법범주로, aktionsart는 동사의 어휘

이에 動詞의 자질을 제시하고, 이러한 자질에 의해 나타나는 動詞部類의 특성을 통해 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상의 해석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국어의 상에 대한 연구가 질적으로 활발하지 못했고 또한 여러 학자의 설이 각기 달리 나타나 개념 및 특성이 정립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아직도 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하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時制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어문법에서 시제와 상을 구분짓기 시작한 것은 이승녕(1961)에서부터이다. 그러다가 국어에는 시제가 없고 상만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기심(1972)은, 자연시간 개념에 맞추어 현재·과거·미래로 三分한 Jespersen 식의 시제체계를 국어에 그대로 도입한 것은 오류였다고 지적하고 그것은 시제가 아니라 상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 다행히 학교문법에서는 동작상이라는 용어로 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너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 보다 분명한 상의 개념적 정립과 그 범위 및 특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학교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의 교육적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상을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究明하고자 한다. 따라서 학교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에 대한 문제점으로 우선, 상의 용어를 '동작상'이라 한 점, 둘째로 상의 종류를 완료상과 진행상의 이분법으로 분류한 점, 셋째로 동사의 어휘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어 있-'과 '-고 있-'에 의해 상이 실현된다고 본 점, 넷째로 시제와 상의 구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상의 개념과 그 해석 방법을 살펴보고, 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고자 상의 본질적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범주로 고찰하였다. 반면에 김성화(1990)는 상을 문법적 범주로 국한시켜 동사의 연결 어미와 조동사의 결합형으로 파악하여 자립어의 어휘의미나 의미자질에 의한 것을 상론에서 제외시켰다. 朴德裕(1997)는 '본용언+보조용언'의 상 형식을 문법상(aspect)이라 하고, 어휘적 의미에 의해 구별되는 동사부류를 어휘상(aktionsart)이라 하여 이 두 범주의상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해 動詞相(verbal aspect)이라 하였다. 이 중, 어휘적 의미에 의해 구별되는 동작류는 동사의 자질에 의해 분류된다.

2. 학교문법의 상과 그 문제점

학교문법에서 상에 대한 언급은 중학교 국어교과서(1997:52) 3학년 1학기 3단원 〈문법기능〉의 ‘(3)시간표현’과 고등학교 문법교과서(1996:52) 제4장 〈문장〉의 ‘2.문법기능 : (3)시간표현’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문법교과서의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시간 표현과 관련을 맺는 또다른 문법 기능에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계속 이어 가는 모습, 동작이 막 끝난 모습 등이 그것이다. 이를 각각 진행, 완료라 하는데, 이렇게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동작상이라 한다.

광수는 지금 학교에 오고 있다. (진행상)

광수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 (완료상)

위의 문장들은 ‘-고 있-’에 의해 진행상이, ‘-아 있-’에 의해 완료상이 실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어에서 동작상은 특정한 선어말 어미에 의해 실현되기보다는 보조적 연결 어미 ‘-어’나 ‘-고’에 보조 용언이 이어져 실현된다.

2.1. 相의 개념과 용어 문제

相(aspect)은 본래 슬라브어 ‘vid’에 해당되는 것으로 장면에 대한 동작의 폭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사의 활용에 完了와 未完了의 구별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로서 어떤 동작이나 사건의 시간적 樣態, 혹은 시간적 폭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가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사의 활용형인 연결어미 ‘-어’와 ‘-고’에 보조동사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완료와 미완료의 구별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말이다. 일반적으로 상이라 하면 이런 통사적 구성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문법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행위나 사건의 변화와 이동과정을 나타내는 장면의 내적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상은 단순히 발화시간과 관련

된 장면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이동과정이 그 장면에 어떻게 펼쳐져 있는가를 보이는 것이다. 즉, 이동의 전개 과정에서 動的 狀況이 나타내는 움직임의 모습을 문법범주화한 것이 상이다.²⁾

앞에서 제시했듯이 학교문법에서는 문법적 범주만으로 상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 용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학교문법에서는 '動作相'이라 하였으나 이는 동사의 어휘적 의미를 제외한 제한적인 의미의 용어상 설정이다.³⁾ 그러므로 상은 문법상만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어휘상까지 포함해서 해석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본다. 상은 형태적 · 의미적 · 통사적 차원에의 접근으로 고찰해야 하므로 '동작상' 보다는 '動詞相'이란 용어가 적절할 것이다.⁴⁾ 상은 동사의 動的인 것으로 나타내는 이동 과정이 장면 내부에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이는 것이므로 동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단순히 用言의 活用形에 의해 전개되는 동작의 양상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동사 자체의 어휘적 의미에 따른 동사의 동적 과정까지도 고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의 해석 방법은 이미 오래 전에 Jespersen(1924)을 거쳐 최근에 Alexander(1981)에 의해 언급된 바 있다.⁵⁾ 결국 국어의 상은 '본용언+보조용언'의 문법적 형식을 통해 나타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相 實質을 통한 동사부류에 의해 결합된 통사적 구성으로 해석해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 따라서 동사 자체의 어휘적 의미에 따라 동사상 자질을 설정하고 그 특성에 의해 동사를 분류한 다음 문법상의 형식을 결합하여 상을 해석해야 할 것이다.⁶⁾

-
- 2) Comrie(1976:6-7)는 相을 문법적 범주인 完了相과 非完了相의 대립으로 파악했으며, 非完了相을 어휘의미적 범주인 습관·진행·지속·반복상 등으로 다시 세분했다.
 - 3) 고영근(1986:108)은 개별어휘가 갖는 동작의 양상은 제외하고, 동사의 활용형에 의해 표시되는 동작의 양상만을 動作相이라 했다.
 - 4) 元大誠(1985)은 動作相과 相의 特性에 힘입어 상적 특성이 동사뿐만 아니라 명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고, 명사를 형태·통사론적인 현상과 관련시켜 動態性의 내포 여부에 따라 하위분류했다. 즉, 명사를 相의 意味로 해석한 名詞相 입장에서 고찰한 셈이다.
 - 5) Alexander(1981:196)는 相을 形態論的 차원, 語彙論的 차원 그리고 統辭論的 차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2.4.상의 본질적 의미를 배제시킨 점'과 '3.상의 본질적 의미에 따른 해결방안'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2.2. 상을 완료상과 진행상으로 제한시킨 점

(1) 가. 철호는 그냥 앉아 있고, 영수는 책을 읽고 있다.

나. 그 배가 곧 떠나려고 한다.

다. 영수는 그 드라마를 보곤 한다.

(1가)에서 '앉아 있다'는 용언의 활용형 '-아'에 보조동사 '있-'이 결합된 '-아 있-' 형태로 행위가 현재에 끝나 있는 상태의 상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상의 형식을 完了相이라 한다. 또한 '읽고 있다'는 용언의 활용형인 '-고'에 보조동사 '있-'이 결합한 형태로 행위가 진행 중인 상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영수가 책을 읽고 있는 동작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부터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그 행위는 당분간 계속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未完了相인 셈이다. 결국 相은 동사의 動的인 것으로 나타내는 이동과정이 장면 내부에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이는 것으로 내적 시간 구성을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면 完了相이요, 여러 국면으로 세분해 그 중 어느 한 국면만을 보여준다면 未完了相이다. 이러한 미완료상은 일시적으로 동작이 계속되는 進行相으로 주로 설명된다. 그러나 국어의 상은 완료상과 진행상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1나)처럼 가까운 미래에도 어떤 동작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는 豫定相이 있으며⁷⁾, (1다)

7) 예정상이 있다고 주장한 학자로는 국내에서는 고영근(1986), 민현식(1990)을 들 수 있으며, 국외학자로는 Comrie(1976)를 들 수 있다. 이 중 Comrie(1976:64)는 어떤 시간의 흐름에 대한 상태와 그것에 선행하는 장면과의 관계를 확인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완료상이 회고적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대칭적인 어떤 형식의 상도 있을 것이라 하여 그것을 예정상(prospective aspect)이라 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예정상이란 화자의 추측이나 의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자에 의해서 보여지는 객관적인 장면으로 '-기로 되어 있다'의 표현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고영근(1986:110)은 예정상을 나타내는 통사적 구성으로 '-게 하-', '-게 되-', '-려(고)'를 들었다. 그러나 '-게 하-'는 문제가 있다.

(1) 가. 민호는 학술회의에 참가하게 된다.

나. 민호를 학술회의에 참가하게 한다.

다. 민호는 학술회의에 참가하려고 한다.

(2) 가. 민호는 학술회의에 참가할 것이다.

에서처럼 그 행위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反復相이 있다.⁸⁾

본용언의 활용형과 보조용언의 결합을 상의 형식으로 본 학자로는 최현배(1937)를 시작으로 허용(1975), 이기동(1976), 고영근(1981), 김용석(1983), 김성화(1990), 민현식(1992), 정희자(1994)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가운데 보다 구체적으로 문법적 범주의 상 형태를 제시한 것은 김성화(1990)이다. 그는 상을 크게 지속상(-어 오-, -어 가-, 고1 있-, -어 대-, -어 쌓-, -곤 하-)과 종결상(-고2 있-, -어 있-, -어 두-, -어 놓-, -어 내-, -고 나-, -어 버리-, -어 치우-, -고 말-, -다가 말-)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실제적인 동적 상황과 관련된 것만 상으로 취급하여 예정되거나 예기되는 동적 상황의 움직임을 상에서 배제시켰다. 그러나 과거에 동작이 시작되어 현재에 그 동작이 끝난 상황의 완료상과 과거에 동작이 시작되어 현재에도 그 동작이 진행중인 진행상(미완료상)만 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에 동작이 시작되어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 동작이 끝날 수 있는 예정상(-려고 하-, -게 되-)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를 기점으로 상을 3분법적인 대칭 구조로 볼 수 있다. 이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나. 민호는 학술회의에 참가하겠다.

(1가)와 (1다)는 의미가 같다. 이는 (2가)의 일반적인 미래나 (2나)의 단순한 추측과는 다른 객관적인 장면으로 예정상의 의미가 된다. 그러나 (1나)는 동작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의 강제적 압력이 있음을 나타낸다. (1)을 ‘-기로 되어 있다’로 바꾸면, 다음 예문처럼 보다 분명히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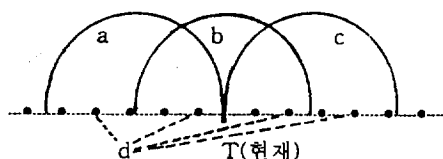
(3) 가. 민호는 학술회의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다.

나. *민호를 학술회의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다.

다. 민호는 학술회의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다.

(3나)는 비문이 되어 상이 아님을 보여 준다. 이는 단지 민호가 행하는 동작의 주동을 나에게 시키는 동작의 사동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따라서 ‘-게 하-’는 예정상이 될 수 없다.

8) 반복상은 주로 ‘-곤 하-’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습관적인 것으로 ‘늘, 항상’ 등의 부사어가 들어 있는 문장과 동일한 것으로 반복상을 나타낸다. 反復과 習慣은 부분적으로 구별되는 면이 있다. 습관이 반복성을 띠는 것이므로 반복성 안에 내포되는 개념으로 보아 습관상보다 반복상을 상위개념으로 파악하고 반복상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 a : 완료상 : 과거시에서 현재시까지 b : 진행상 : 과거시에서 미래시까지
 c : 예정상 : 현재시에서 미래시까지
 d : 반복상 : 완료상, 진행상, 예정상에 모두 나타남

2.3. 時制와 相의 구별

相은 時制와는 달리, 그것이 발화의 시간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시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이에 상은 문법범주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어휘범주로 취급될 수도 있다. 우선 문법범주면에서 Comrie(1976:25)는 완료상과 미완료상으로 나누어 설명했고, Quirk(1985:188)는 完了相과 進行相의 기본적인 대립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어휘범주면에서 Quirk(1985:189)는 相은 時制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영어문법에서 상과 시제의 구별은 우리들 마음 속에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실현 방법(時制의 形態論的 실현과 相의 統辭論的인 실현)을 구분하도록 도와주는 용어상의 편리함 정도라고 했다. 李南淳(1995:23)은 시제와 상의 범주는 패러다임을 달리하는 범주로 보고, 시제와 상의 범주는 문장에 대하여 서로 다른 통합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이를 표시하는 형식들은 서로 배타적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시제는 사건이나 사태의 시간적인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 過去 '-었-'과 非過去 '-Ø-'의 대립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상은 사건이나 사태가 동작이나 상태의 국면 속으로 진입해서 全局面을 보이는 쪽으로 가면 未完了相(-고), 동작이나 상태의 전체 국면을 보이고 있으면 完了相(-어)이라 했다.

고등학교 문법(1996:89-92)에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의 앞뒤를 제한하는 문법 기능을 시제라 하고,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動作相이라 하여 동작이 계속 이어가면 進行相(-고 있-), 동작이 막 끝난 모습이면 完了相(-어 있-)이라 했다.

(2)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지인이는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2)에서 '들어갔다'는 것은 장면이 분해되지 않는 하나의 전체적인 것으로 내적인 시간 구성을 갖지 않는 상황이므로 시제범주에 해당하는 단순과거이다. 단순히 발화시간이 '-았-'의 형태소에 의해 과거라는 장면의 위치를 제시하는 외적 상황일 뿐이다. 반면에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는 장면의 내적 시간 구성을 만들고 있다. 지인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동작은 내가 들어가기 전부터 이루어졌으며,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상으로 보아야 한다.

시제는 우선 발화시간과 관련된 장면의 시간적 위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나의 문법범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시제는 지시적인 것으로 장면의 외적 구성이며 주로 형태적 실현에 초점을 둔다. 반면에 상은 단순히 발화시간과 관련된 장면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이 그 장면에 어떻게 펼쳐져 있는가에 있다. 따라서 시제가 장면의 외적 상황이라면 상은 장면의 내적 상황이다. 그리고 시제가 주로 형태적 실현이라면 상은 통사적 실현에 있다. 이에 과거시제인 '-었-'과 상의 의미를 갖는 '-어 있-', '-고 있-'을 통해 이들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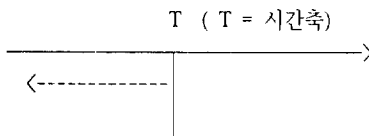
(3) 가. 나는 인천에서 5년 동안 살았다.

나. 나는 인천에서 5년 동안 살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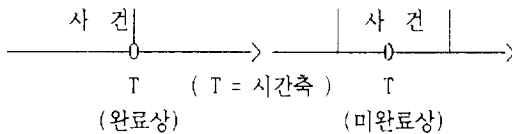
다. 나는 인천에서 5년 동안 살고 있다.

(3가)는 현재 순간 이전에 일어난 상태를 의미하고, (3다)는 현재 살고 있는 중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가)는 '-았-'의 형태적 표기로 알 수 있듯이 단순과거를 의미하며, (다)는 '-고 있-'으로 장면의 내적인 시간구성을 지니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상을 나타낸다. 나머지의 상적 의미는 동사 자체가 갖고

있는 어휘적 의미나 문맥적 상황에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의미면에서 상과 시제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3나)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나)는 과거시에서 현재 순간 직전까지 살아온 現在完了인 경우로 거주가 현재시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아마도 그 거주는 미래에까지 지속될지도 모른다. 즉, 과거(이전의 시간)의 시간적 의미가 현재에 행해지고 있는 것에 관련된다. 이에 대해 Quirk(1985:190)는 현재완료를 과거로부터 현재시점까지 행해진 사건에 관련된 과거시간으로 보아 完了相으로 취급하고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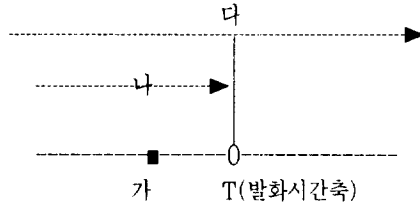


그는 여기서 T의 의미를 現在完了인 경우에는 T1(현재 순간)이 되고, 過去完了인 경우에는 T2(과거 행위의 특별한 시간)로 파악했다. Givón(1984:277)은 사건이 시간축을 기점으로 完了, 終了, 完成되었으면 완료상으로, 시간축에 어떤 최종점도 제시되지 않으면 미완료상으로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완료상은 시간축인 T를 기준으로 하여 사건이 완료된 상황이며, 미완료상은 T를 기준으로 사건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을 나타낸다.

요컨대 상은 기본적인 형태의 문법 범주면에서 '-어'의 완료상과 '-고'의 미완료상으로 실현된다. 특히 '-었-'인 과거시제와 상은 분명히 다르다. 이에 과거시제와 완료상 그리고 미완료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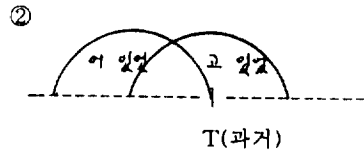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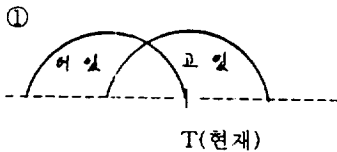


앞의 그림에서 (가)는 현재 시점인 시간축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기에 過去時制이다. 그리고 (나)는 사건시가 현재시점인 발화시간축까지 이어져 그 간격이 없기에 完了相이며, (다)는 발화시간축을 기준으로 동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에 未完了相이다.

여기서 의문시되는 점은 과거완료의 상황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었었-', '-어 있었-', '-고 있었-'의 의미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었었-'은 '-었-'의 중첩으로 보아 '과거의 과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발화자가 '-었-'으로 표현될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 있었-'은 완료상이요, '-고 있었-'은 진행상으로 미완료상인 셈이다. 여기서 기준시는 '-었-'이 된다. 따라서 현재완료의 기준시가 현재라면, 과거완료의 기준시는 과거가 될 뿐, 상의 의미는 동일한 것이다.

- (4) 가. 영수는 부산에 갔었다.
 나. 영수는 부산에 가 있었다.
 다. 영수는 부산에 가고 있었다.

(4가)는 과거의 과거이며, (4나)는 과거의 완료로 완료상이며, (4다)는 과거진행으로 미완료상이다. 아래의 도표에서 기준시가 현재(①)와 과거(②)일 뿐이지 상의 의미인 완료상과 미완료상의 의미는 동일한 것이다.



2.4. 상의 본질적 의미를 배제시킨 점

학교문법에서는 동사의 자질에 의한 상의 본질적 의미를 배제시키고 무조건 보조적 연결어미 ‘-어’와 ‘-고’에 보조용언 ‘있-’이 이어져 ‘-어 있-’이 결합하면 완료상이요, ‘-고 있-’이 결합하면 진행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휘적 의미인 본 용언의 동사부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결합은 달리 나타난다.

(5) 가. 지인이는 노래를 부르고1 있다.

나. *지인이는 노래를 부르고2 있다.

(6) 가. 혜인이는 옷을 입고1 있다.

나. 혜인이는 옷을 입고2 있다.

(7) 가. *나는 그 이야기를 믿고1 있다.

나. 나는 그 이야기를 믿고2 있다.

(5가)에서 동사 ‘부르다’는 ‘-고1 있-’인 상적 의미의 결합으로 進行相이다. 그러나 (5나)처럼 완료 후 결과의 상태 지속인 ‘-고2 있-’과는 결합하지 않는다.⁹⁾ 그리고 (6)의 ‘입다’ 동사는 진행인 ‘-고1 있-’, 완료인 ‘-고2 있-’과 모두 결합한다. 또한 (7)에서처럼 ‘믿다’ 동사는 진행인 ‘-고1 있-’과는 결합하지 않으나, 완료인 ‘-고2 있-’과는 결합한다. 이것은 (5가)의 ‘부르다’는 행위동사로 相 資質이 [+동적, -완성성, -순간성]이므로 진행인 ‘-고1 있-’과는 결합할 수 있으나 완료인 ‘-고2 있-’과는 결합할 수 없는 것이다. (6)의 ‘입다’는 완성동사로 [+동적, +완성성, -순간성]의 자질이이므로 진행인 ‘-고1 있-’, 완료인 ‘-고2 있-’과의 결합이 모두 가능하다. 이는 상 자질에 의한 동사부류에 문법상의 형식을 적용시킨 것이다. 이렇게 동사 자질에 의한 상 분류의 접근 해

9) ‘-어 있-’, ‘고2 있-’ 모두 완료상을 나타내는 상의 형식이지만, 특수한 어휘적 의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어 있-’은 (가)처럼 목적어를 취하지 않은 자동사를 수반한 경우에 사용되고, ‘고2 있-’은 (나)처럼 목적어인 타동사를 수반한 경우에 사용된다.

가. 영희는 부산에 가 있다.

나. 영수는 모자를 쓰고2 있다.

석은 (7)에서 더욱 복잡해진다. '믿다'의 동사는 [-동적]이지만 상적 의미가 없는 상태동사와는 다르다. 따라서 이는 심리동사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심리동사는 내적 시간이 존재하는 心的인 태도로 발화자만이 지각하고 인식하는 행위이므로 상적 의미를 갖는다.¹⁰⁾ 그러므로 심리동사는 '-고1 있-'과 결합이 가능하지만, '믿다'류 동사는 '-고1 있-'과 결합하지 않는다.¹¹⁾ 그리고 [+완성성] 자질을 가지므로 완료인 '-고2 있-'과 결합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의 의미를 문법상에만 의존하면 내적 구성을 나타내는 주관적인 관점으로 파악되므로 자의적일 수도 있다. 즉 상 자질에 의한 동사부류의 특성에 따라 문법상의 결합은 달리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상을 보다 체계적이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사의 어휘적 의미에 따른 相 자질에 의한 개념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어휘상을 나타내는 상의 주요 자질은 [+동적], [+완성성], [+순간성]을 들 수 있으며, 이 자질에 의한 동사를 분류하면 상태동사, 심리동사, 행위동사, 변화동사, 완결동사, 순간동사로

- 10) 심리동사는 상태동사와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심리동사는 발화자만이 인식할 수 있는 정신적 지적 행위로 인식동사 외에도 지각동사(보다, 듣다, 맛보다, 맡다 등)와 감각동사(쑤시다, 아파하다, 결리다, 가려워하다 등)를 내포한다. 심리동사는 [-동태성, +완결성]의 자질을 가지므로 인식동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고1 있-'과 결합한다.

가. 나는 바다를 보고1 있다.

나. 영수는 음악을 듣고1 있다.

다. 나는 팔이 쑤시고1 있다.

라. 나는 등이 결리고1 있다.

- 11) 이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의식의 작용으로 정서, 기억, 상상, 추리를 포함하는 지적 작용 동사로 인식동사라 할 수 있다. 이런 인식동사로는 '믿다, 좋아하다, 기억하다, 짐작하다, 계획하다, 상상하다, 사랑하다, 동정하다, 의미하다, 가정하다'로 진행인 '-고1 있-'과는 결합하지 않고, 완료인 '-고2 있-'과는 결합한다

(1) 가. *민영이는 경석이를 좋아하고1 있다.

나. 민영이는 경석이를 좋아하고2 있다.

(2) 가. *경호는 어릴 때의 사건을 기억하고1 있다.

나. 경호는 어릴 때의 사건을 기억하고2 있다.

이렇게 자질에 따라 분류한 경우에 예외가 생기는 경우는 상의 의미가 단지 용언의 활용형에 의해 전개되는 동작의 양상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사 자체의 어휘적 의미에 따른 동적 과정까지를 고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눌 수 있다.¹²⁾

결국, 상은 형태론적인 틀의 문법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동사의 어휘적 의미가 결합된 통사적 구성에 따른 방법론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표적 상 형식인 완료상('어 있-, -고2 있-'), 진행상('고1 있-'), 반복상('곤 하-'), 예정상('려고 하-')의 형식을 동사의 자질에 의해 분류된 동사부류와의 결합으로 나타내야 한다. 이는 다음의 상의 본질적 의미에서 자세히 제시될 것이다.

3. 相의 본질적 의미에 따른 해결방안

상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상의 본질적 의미를 동사의 자질과 관련시켜 파악함으로써 그 동사부류를 문법상과 결합시켜 고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의 본질적 의미의 설정은 상의 주요 기준이 되는 동사의 자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간 이 자질에 대한 연구로는 Garey(1957), Vendler(1967)를 거쳐 Comrie(1976)에 와서 어느 정도 체계화되었다. 그리고 국어의 상 자질에 관련된 연구로는 油谷幸利(1978), 李南淳(1981), 李智涼(1982), 정문수(1984), 황병순(1986), 정희자(1994), 朴德裕(1997)를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상의 본질적 의미를 상태성과 동태성, 완결성과 비완결성, 순간성과 지속성으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자질을 [±동적], [±완성성], [±순간성]으로 파악하여 동사의 자질과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상의 올바른 해석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3.1. 狀態性和 動態性

어떤 행위의 움직임이 없으면 상태성, 움직임이 있으면 동태성으로 구분된다. 상태성은 [－동적] 자질을, 동태성은 [+동적] 자질을 갖는다.

1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朴德裕(1997) 참조.

- (8) 가. 영수가 사는 아파트는 낮다.
 나. *영수가 사는 아파트는 낮고1 있다.
 다. *영수가 사는 아파트는 낮아 있다.
 (9) 가. 혜인이는 그림을 그리고1 있다.
 나. 지인이는 의자에 앉아 있다.

(8가)의 '낮다'는 상태성 부류의 동사인 형용사로 동작의 변화가 없이 항상 일정한 상태의 지속일 뿐 어떤 내적인 변화도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8나)처럼 동작의 진행형을 나타내는 '-고1 있-'과의 결합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8다)처럼 동작의 완료형인 '-어 있-'과도 결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9)의 동태성 부류의 동사는 그렇지 않다. 우선 (9가)의 경우, 어떤 순간에는 붓을 도화지에다 대고 그릴 수도 있으며, 어느 순간에는 붓으로 파렛트에 있는 물감을 배합할 수도 있다. 곧 '그리다'의 동사는 필수적으로 어떤 변화를 내포하게 된다. (9나) 역시 지인이가 의자에 앉아 있어 동작이 완료된 국면을 갖는다.

[-동적] 자질을 갖는 동사로는 '길다, 짧다, 희다, 검다, 붉다, 높다, 낮다, 작다, 많다, 적다, 어둡다, 밝다, 있다, 없다, 크다, 작다, 맑다, 흐리다' 등을 들 수 있다. [-동적] 자질이 지시하는 장면은 내적 시간을 갖지 않아 출발점이나 완성점을 갖지 않아 어떤 사건의 전개 행위나 과정도 없다. 그러므로 장면의 어느 한 부분을 일시적으로 나타내는 진행의 '-고1 있-'과도 결합하지 않으며, 완료성도 갖지 않기에 타동사와 결합하는 '-고2 있-'이나 자동사와 결합하는 '-어 있-'과도 결합하지 않는다. 또한 반복적 의미의 '-곤 하-'와도 결합하지 않으며, 앞으로 일어날 예정상의 형태인 '-려고 하-'와도 결합하지 않는다. 이에 예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0) 가. *저 담은 높고1 있다.
 나. *하늘이 높고2 있다.
 다. *지붕이 낮아 있다.
 라. *하늘이 높곤 했다.
 마. *담이 높으려고 한다.

이에 상태성 자질의 특성을 통사적 구성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결합 가능, - : 결합 불가능)

	-고1 있-	-고2 있-	-어 있-	-곤 하-	-려고 하-	예
상태성	-	-	-	-	-	길다, 낮다, 있다, 많다, 밝다, 크다, 작다

[+동적] 자질은 [-동적] 자질과 대립되는 것으로 이는 동작이 펼쳐지는 장면이 있으므로 상의 본질적 의미의 주를 이룬다. 따라서 [+동적]의 하위 자질로 [±완성성], [±순간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자질 특성은 다음 항들에서 제시될 것이다.

3.2. 完結性과 非完結性

완결성과 비완결성을 구별하는 상 자질은 [±완성성]으로 [+완성성]은 어떤 행위나 사건의 장면이 완성점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행위가 중단되면 완결된 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이며, 반면에 [-완성성]은 어느 특정한 완성점이 없이 중간에 그만 두어도 그 행위나 사건을 취한 경우이다.

(11) 가. 미영이는 피아노를 치고1 있다.

나. 민구는 의자를 만들고1 있다.

(11)의 두 예인 '피아노를 치고1 있다'와 '의자를 만들고 있다'는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적인 것으로 인지될 수 있다. 따라서 그 행위는 긴 시간이거나 혹은 짧은 시간이거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11나)는 민구가 의자를 만드는 상황에서 의자를 만드는 행위는 의자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그 행위는 '完了'된다. 따라서 '의자를 만들고 있다'의 진행 과정은 '의자를 만들었다'는 행위의 완결점을 함의할 수 없다. 즉, 의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행위를 중단하면 완성된 의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자를 만드는 행위가 끝났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11가)의 ‘미영이는 피아노를 치고 있다’는 달리 설명된다. 미영이는 어떤 부분에서 피아노를 치다가 중단할 수 있다. 그런데도 미영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다’의 행위는 피아노를 끝마친 완결점에 이르지 않아도 ‘피아노를 쳤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진행의 상황이지만 ‘피아노를 쳤다’는 완료의 상황을 함의한다. 이는 미영이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다가 어떤 순간에 피아노 치기를 그만 두어도 미영이는 ‘피아노를 쳐 왔다’는 것이 사실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1가)처럼 기술되는 상황을 [-완성성]의 비완결성이라 하고, (11나)처럼 기술되는 상황을 [+완성성]의 완결성이라 한다.

[+완성성]의 자질을 갖는 완결성 부류의 동사로 ‘입다, 벗다, 신다, 매다, 쓰다, 끼다, 닫다, 열다, 만들다, 짓다(밥을), 달다, 쥐다, 감다, 물다, 덮다, 들다, 세차하다’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완결성 동사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완전한 상황이 이루어지는 끝점인 완결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중 일부 동사인 ‘만들다, 짓다, 세차하다’ 동사는 완결성 동사이지만 ‘-고2 있-’과는 결합할 수 없다.

- (12) 가. 지인은 옷을 입고2 있다.
 나. 혜인은 모자를 벗고2 있다.
 다. 민수는 신발을 신고2 있다.
 (13) 가. *아저씨는 의자를 만들고2 있다.
 나. *어머니는 밥을 짓고2 있다.
 다. *민호는 차를 세차하고2 있다.

(12)의 예에서 보듯이 ‘입다, 벗다, 신다’의 동사는 모두 ‘-고2 있-’과 결합함으로써 완료의 상태를 의미하지만, (13)의 ‘만들다, 짓다, 세차하다’ 동사는 완결성 동사이지만 ‘-고2 있-’과는 결합할 수 없다. 이는 (12)의 동사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의 행위에 따른 것이지만, (13)의 동사들은 어휘적 의미 자체가 보다 긴 시간의 행위를 요하는 특별한 것으로 어느 정도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외에는 모든 문법상의 형식과 결합한다.

- (14) 가. 민수는 신발을 신고1 있다.
 나. 정수는 검은 장갑을 끼고2 있다.
 다. 영숙이의 손에 물건이 쥐어 있다.
 라. 순이는 창문을 열곤 한다.
 마. 혜인이는 모자를 쓰려고 한다.

이에 완결성의 특성을 통사적 구성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고1 있-	-고2 있-	-어 있-	-곤 하-	-려고 하-	예
완결성	+	+	+	+	+	신다, 끼다, 쥐다, 열다, 쓰다, 입다...

[-완성성]의 자질을 갖는 비완결성 동사로는 '주다, 건다, 읽다, 일하다, 마시다, 먹다, 놀다, 돌다(운동장), 뚫다, 쓰다(글), 오다(비/눈), 날다, 달리다, 뛰다'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비완결성에 대한 자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류의 동사는 [+동적] 자질을 함의하므로 진행인 '-고1 있-'과 결합한다. 그리고 [-완성성]이므로 '-고2 있-'이나, '-어 있-'과는 결합하지 않으며, '-곤 하-', '-려고 하-'와는 결합한다.

- (15) 가. 순이는 사과를 먹고1 있다.
 나. *순이는 사과를 먹고2 있다.
 다. *순이는 사과를 먹어 있다.
 라. 철수는 술을 마시곤 한다.
 마. 철민이는 노래를 부르려고 한다.

이에 비완결성의 특성을 통사적 구성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1 있-	-고2 있-	-어 있-	-곤 하-	-려고 하-	예
비완결성	+	-	-	+	+	읽다, 부르다, 놀다, 마시다, 먹다...

3.3. 瞬間性和 持續性

순간성은 아주 짧은 시간에 관련된 일련의 순간적 사건으로 시간적인 지속이 없으나, 지속성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시간이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이는 자질〔±순간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순간성〕자질은〔-순간성〕인 지속성에 대립되는 특성이다. 그런데 지속성은 단순히 주어진 상황의 어떤 시간을 일정 기간 동안 존속하는 사실에 관련되므로 장면을 내부구조의 관점에서 취하는 미완료성과는 구별된다. 결국 지속성은 동작이 완료된 동일한 상황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상태가 지속되는 특성을 의미한다. 따라서〔-순간성〕은 짧은 시간의 순간적인 발생이 아니라, 주어진 어떤 상황의 일정 기간이 상태성으로 지속되는 것이므로 동작이나 과정이 계속되는 진행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16) 가. 명호는 한 시간 동안 벌을 받는다.

나. 명호는 한 시간 동안 벌을 받고 있다.

다. 명호는 요즘 벌을 받는다.

(16가)는 명호가 한 시간 동안 벌을 받고 있는 미완료의 의미로 이는 ‘-고1 있-’과 결합한 (16나)의 진행상과 동일한 의미다. 그러나 (16다)는 벌을 받는 행위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주기적으로 벌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속은 주로 한 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됨을 뜻하는 반면에, 진행은 동작이나 과정이 주어진 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됨을 뜻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의 길이는 비교적 짧으나 지속의 경우는 긴 때가 많다.

이에 반해〔+순간성〕은 어떤 지속됨이 없이 순간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순간성 자질을 갖는 부류의 동사로는 ‘뛰어오르다, 때리다, 꼬집다, 차다(궁), 끄떡거리다, 깜박이다, 쏘다, 두드리다, 딸꾹질하다’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순간성〕은 아주 짧은 시간인 순간적인 사건의 반복이나 일련의 순간적 사건으로 내부구조를 갖지 않으며 시간적으로 지속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지속을

나타내는 부사어와도 결합하지 않는다. 이에 상 자질의 특성을 갖는 형식과의 결합을 살펴보면 우선, 'V-고1 있-'은 진행상의 의미가 아니라, 행위의 반복됨을 의미한다.¹³⁾

(17) 가. 영수는 기침을 하고1 있다.

나. 영수는 기침을 하곤 한다.

(17가)에서 영수는 지금 일회적인 기침을 하고 있는 반복상의 의미이면서, 이는 일련의 기침을 하고 있는 연속적인 상황으로도 파악된다. 또한 (17나)처럼 '-곤 하-'와의 결합은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적인 반복상의 의미가 된다.

이러한 순간성 동사는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이 동시적인 발생이므로 예정상의 '-려고 하-'와는 결합하나, 행위의 완료를 갖는 '-고2 있-', '-어 있-'과는 결합하지 않는다.

(18) 가. 지혜는 기침을 하려고 한다.

나. *영수는 철호를 때리고2 있다.

다. *미영이는 딸꾹질해 있다.

이에 순간성 자질의 특성을 통사적 구성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1 있-	-고2 있-	-어 있-	-곤 하-	-려고 하-	예
순간성 의미변이 (반복상)		-	-	+	+	두드리다, 때리다, 딸꾹질하다, 쏘다...

4. 결 론

지금까지 학교문법에서 제시한 상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써 상의

13) 이 경우 반복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회적인 반복의 의미이며, 또 다른 의미는 연속적인 반복의 의미이다.

올바른 교육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상의 본질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상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해결방안을 보였다. 서구문법에서는 상을 aspect와 aktionsart로 나누었다. 전자는 文法相으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통합 구성으로 실현되며, 후자는 語彙相으로 동사의 어휘적 의미에 의해 실현된다. 본고는 이 두 가지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상의 용어를 動詞相이라 했다. 상은 단순히 용언의 활용형에 의해 전개되는 동작의 양상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동사 자체의 어휘적 의미에 따른 동사의 동적 과정까지를 고찰하는 것이 상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은 '-어 있-'의 완료상과 '-고 있-'의 진행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려고 하-'의 예정상이나 '-곤 하-'의 반복상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제(과거시제)와 상(완료상, 미완료상)의 구별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상의 본질적 의미를 배제시켜 마치 모든 동사에 '-어 있-', '-고 있-'의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보였다. 즉, 상의 본질적 의미인 상태성과 동태성, 완결성과 비완결성, 순간성과 지속성에 따른 자질로 [±동적], [±완성성], [±순간성]의 자질에 따라 동사를 분류하여 '본용언+보조용언'의 형식으로 그 통사적 구성을 보였다. 따라서 국어의 상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의 본질적 의미와 동사의 자질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상의 기본적인 특성과 자질에 따른 동사부류로 고찰했지만, 예외적인 요인이나 더 광범위한 실례를 들지는 않았다. 따라서 담화상에서까지 나타나는 보다 폭넓은 상의 교육적 연구에 대해서는 차기 과제로 남긴다.

〈참고 문헌〉

- 高永根(1981), 中世國語의 時相과 敍法, 塔出版社.
 ----(1986), "國語의 時制와 動作相," 국어생활 6.
 교육부(1996), 고등학교 문법.
 ----(1997), 중학국어 3-1.

- 김성화(1990), 현대국어의 상 연구, 한신문화사.
- 김용석(1983), "한국어 보조동사 연구," 배달말 8.
- 南基心(1972), "現代國語 時制에 關한 問題," 國語國文學 55-57(합병호).
- 閔賢植(1990), "國語의 時相과 時間副詞 : 時制, 相, 敘法の 3元의 解釋論," 국어교육 69,70.
- (1991), 國語의 時相과 時間副詞, 개문사.
- (1992), "현대국어 보조용언 처리의 재검토," 語文論集 第3輯, 淑明女子大學校.
- 朴德裕(1996), "現代國語의 時間表現에서의 時制와 相에 대하여," 語文研究 91호.
- (1997), 現代國語의 動詞相 研究,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 (1998), 國語의 動詞相 研究, 한국문화사.
- 元大誠(1985), "名詞의 相의 特性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 第65號.
- 이기동(1976), "조동사의 의미분석," 문법연구 3.
- 李南淳(1981), "現代國語의 時制와 相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 46.
- (1995), "국어의 syntagm과 paradigm을 위하여," 國語學 25.
- 李崇寧(1961), 中世國語文法, 을유문화사.
- 李智涼(1982), "現代國語의 時相形態에 관한 研究," 國語研究 51.
- 李晶洙(1992), 國文法の 理解, 仁荷大出版部.
- 정문수(1984), "相의 特性에 따른 韓國語 풀이씨의 分類," 문법연구 5.
- 정희자(1994), "시제와 상의 화용상 선택조건," 애산학보 15집.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출판부.
- 허웅(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 黃炳淳(1986), "국어 동사의 상 연구," 배달말 11호.
- 池谷幸利(1978), "現代韓國語의 動詞分類 : aspect를 중심으로," 朝鮮學報 제87輯.
- Alexander, P.D.(1981), *Events, Processes and States in Syntax and Semantics* 14, New York, Academic Press.
- Comrie, B.(1976), *Aspect*, Cambridge Univ. Press.
- Forsyth, J.(1970), *A Grammar of Aspect, Usage and Meaning in the Russian Verb*, Cambridge Univ. Press.
- Garey, H. B. (1957), "Verbal aspect in French," *Language* 33.
- Givón, T.(1984), *Syntax : A Functional - Typological Introduction Vol. I.*,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Jespersen, O.(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Maslov, Ju. S.(1962), *Voprosy Glagol'nogo Vida* : Sbornik Moscow.

Quirk, R., Greenbaum, S., Leech, G. and Svartvik, J.(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and New York, Longman Inc.

Vendler, Zemo(1967), "Verbs & Times," *Linguistics in Philosophy*, Cornell Univ. Press.

〈Abstract〉

The Point at Issue of Aspect Represented Through School Grammar and the Study of Its Solution

Park, Dŏk-yu

This study is to represent the educational direction of Korean language as consider point at issue of aspect represented through school grammar. Most of recent studies of aspect have relied on the grammatical aspect. Therefore, the school grammar calls it movement aspect, which is concerned only with the grammatical aspect of the restrictive use. This study terms it 'verbal aspect', because it contains not only the grammatical aspect but also the not grammatical aspect.

Aspect is closely related to verb, since aspect is based on different ways of viewing the internal temporal constituency of a situation around a verb. Therefore, it is natural to examine not only the modality of action by the conjugation form of declinable words but also dynamic process of verbs in the lexical meaning. It is more rational to maintain that the aspect of the Korean language is based on grammatical forms by the 'main declinable verb + assistance declinable verb' and, also, to deal with the lexical aspect by the verb classes through aspectual features.

In this study, syntactic constructions of the aspect are applied to the lexical meaning of a verb. To do so, aspectual features are established first and verbs are classified into orders. The aspectual

features of verbs are divided into $\{\pm\text{dynamic}\}$, $\{\pm\text{accomplishment}\}$, $\{\pm\text{momentariness}\}$. Aspect can be divided into perfect aspect and imperfect aspect. Imperfect aspect is subdivided into a number of distinct categories : progressive aspect, iterative aspect and prospective aspect.